나주시, 이재민 심리상담 지원 …다시초 현장 상담소 운영

오는 21일까지 맞춤형 1:1개별상담 · 우울증 척도 검사 등 심리 회복 최선

고위험군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해 회복단계까지 지속 관리 예정

나주시가 수해 이재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주시 보건소는 18일부터 21일까지 다시초등학교 임시 이재민 시설에서 찾아가는 재난심리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해 충격에 따른 이재민의 심리상태 파악과 회복에 중점을 두고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배치, 1:1 개별상담 · 우울증 척도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우울, 불안감이 심화되는 고위험군의 경우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회복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다시초교 대강당 이재민 시설에는 지난 폭우 피해로 발생한 최초 48명의 이재민 중 18일 현재 21명이 임시 거주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이은 극심한 재난에 우울, 불안을 겪으며 고통 받는 주민들의 심리회복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해 시설물 복구와 병행해 재난 스트레스에 노출된 이재민의 정신건강 회복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심리회복 상담 문의는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333-6200)로 하면 된다.

기동취재본부

나주시 산포면 마성마을, 제2호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나주시가 산포면 매성리 마성마을을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2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했다.

나주시 치매안심센터는 14일 산포면 마성마을 마을회관에서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마을 조성은 치매환자와 가족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마을 이웃과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비율, 치매 사업에 대한 주민 관심도 등을 고려해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다.

앞서 지난 해 1월 다시면 죽산리 화동마을이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바 있다.

센터는 제2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산포면 마성마을에 60세 이상 주민 대상 치매검진 전수조사를 비롯한 초기 · 경증 · 중증환자별 인지강화 프로그램, 환자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자조모임, 치매인식개선활동 등 다각적인 치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 인권교육

광양노인복지관은 지난 14일 복지관 이용 어르신 65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은 입실 전 발열체크, 손소독, 좌석 간 2m 간격 유지, 교육장소 사전 소독 실시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권 전문강사가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의 인권', '노인 상호 인권 존중' 등을 주제로 생활 속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진행됐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으로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곳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전남복지재단, 한국전력과 손잡고 취약계층 전문 배전기술자 양성

전라남도 일자리 디딤돌 사업…배전 기능인력 교육 · 취업지원

전남복지재단(대표이사 신현숙)이 한국전력공사와 손잡고 취약계층(저소득자, 다문화 · 장애인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장기 실업자 등)을 전문 배전기술자로 양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재단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배전 기능인력 교육과정인 '일자리 디딤돌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9월 11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한전은 전문 기술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계약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윈-윈' 일자리 사업이다.

참여자들에게는 전문교육 이후 취업지원이 이어지고, 교육기간 교육비 · 가족생활비와 취업 이후 취업성공수당 등이 주어진다.

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40세 미만 복지 취약계층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면접을 거쳐 모두 20명을 모집한다.

교육 분야는 가공배전, 지중배전, 전기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이론과 실기 과정이며,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인재개발원에서 10월부터 5개월 동안 합숙하며 수련한다.

기술자격을 취득한 교육생은 한전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지역 우량 시공회사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한전은 교육훈련비와 가족 생활비를, 재단은 취업 성공수당을 지원한다.

9월 11일까지 신청 접수

전문 기술인력 수급 해소

저임금 · 불안정 고용 해결

신현숙 대표이사는 "이 사업은 지역이전 공공기관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공적인 협력모델이 될 것"이라며 "교육생 모두가 전문기술인으로 거듭나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전 기능인력 양성 과정 일정과 참여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복지재단 누리집이나 전화(061-287-8150, 8151)로 문의하면 된다.

서선옥 기자